

# 2분기 도내 경기, 1분기보다 다소 개선

### 제조업·건설투자, 소폭 증가... 서비스업·소비·수출·설비투자는 보합세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도내 경기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제조업과 건설투자는 소폭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과 소비, 수출 및 설비투자는 보합세가 이어졌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역 내 업체 및 유관기관(총 58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4분기 중 도내 경기는 1/4분기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 측면에서는 제조업 생산은 소폭 증가했으며 서비스업 생산은 보합세로 나타났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 수출 및 설비투자는 보합을 나타낸 반면, 건설투자는 소폭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승용차는 지난분기 신차출시 이후 4월부터 호조로 신차수출을 개시하는 등 전분기 수준

의 생산을 유지했으며, 승용차는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부진과 경쟁심화 등으로 부진한 가운데 지난분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조선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잔여건조물량의 인도가 6월까지로 예정돼 있어 생산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7월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될 예정에 따라 향후 생산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학은 폴리실리콘 생산이 지난분기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판매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다소 감소했고, 건설기계는 중국 건설장비 교체시기 도래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분기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비스업 생산의 경우 도소매업 증감화점, 대형마트는 5월초 연휴에도 불구하고 해외소매의 증가 등에 따라 매출이 감소했으며, 전통시장은 전반적인 도소매 협력이 위축된 가운데

전주국제영화제, FIFA U-20 월드컵 대회의 개최 등에 힘입어 야시장 등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대체로 지난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운수업은 도내 내방객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 관광은 봄여행주간에 5월초의 연휴기간이 포함되어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이 증가했다.

향후 제조업 생산은 보합 수준을 보일 것으로 조사됐으며,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에서 자동차는 신차의 모델 다양화 등으로 생산이 증가할 전망이다. 건설기계 생산은 중국 수요가 지속되며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화학업종도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지난분기의 생산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조선은 공장가동중단으로 생산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1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부문은 2015~16년중 예년대비 늘어난 아파트 분양물량으로 주거용 건물의 증가세가 지속됐다.

공공부문은 상반기 예산조기집행을 위해 지자체가 발주를 본격화하고 있고 새만금산업단지도 신규 매립에 대체로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에서 그간 미분양 및 과잉공급 우려 등으로 추축했던 아파트 분양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부문도 새만금사업 관련 신규발주가 꾸준히 이어짐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새정부의 지역 경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보합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NH참여우, 롯데百 청량리점 입점

### 권용학 대표 "수도권 유통 판로개척 노력"

전북한우 광역브랜드 NH참여우가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 입점했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전북 한우 광역브랜드 '참여우'가 지난29일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입점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NH참여우는 지난 2010년 ~ 2012년 3년 연속 대통령상(대상), 2013년 ~ 2016년 4년 연속 국가명품인증 수상한 전북한우 광역브랜드이다.

NH참여우조공법인 권용학 대표는 "이번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입점으로 수도권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전북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도권 유통 판로개척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북농협 강태호 본부장은 "NH참여우가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를 통한 한우고기 판매확대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 '대물변제 허용사유 확대' 방침에 중소기업계 '반발'

### 업계 관계자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 못하도록 한 내용과 정면 상충"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허용사유 확대' 방침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 중소기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대물변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했다.

또한 지난 25일에는 오히려 대물변

제를 허용하는 예외사유를 늘리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급사업자의 요청이라는 '불가피한 사유'에 기업구조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외에도 발주자가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 발주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전경협이 반대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데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각 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들이 잇따라 의견제출, 항의방문 등을 통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합의나 발주자의 파산 등의 사유를 포함한 대물변제를 인정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법령 개

정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지난 4월 개정된 법률개정 취지인 수급사업자의 수용 의사 여부를 불문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과 정면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4월 개정된 하도급법에 중소기업계는 큰 기대를 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허무는 반대되는 의견"이라며 "대물 변제 예외직용을 원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유들은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경진원-지식재산센터, 기술사업화 분야 업무협약 체결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지식재산센터는 30일 지역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사업화 및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사업화 아이템 발굴 및 정책개발 활동을 협업하고, 지식재산 창출 및 지재권 정보 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협력하게 된다.

실례로, 전북지식재산센터는 경진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내 50인 이하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지원을 위한 맞춤형 단계별 지원프

로그램 '중소기업 맞춤형기술역량강화사업'의 지식재산권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의 협업기관으로 참여해 업체발굴에서부터 사업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올해에도 10개 내외의 기업의 지식재산권 기술가치평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경진원 홍용웅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사업화 및 지식재산 창출관련 분야에서 두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재용 기자

## 농어촌공 전복, 지하수 공급 관정 개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영농기 용수부족을 겪고 있는 순창군 동계면 일원에 매일 900톤의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는 관정을 개발했다.

이번 지하수 개발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지하수착정장비와 기술인력, 자체 예산을 긴급 투입해 성공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용수개발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충분한 지하수를 확보하지 못해 지하수개발이 어려운 곳으로 인식됐던 지역이었기에 더욱 값진

성적이다. 40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순창군의 관내 평균 저수율이 39%(평년대비 59%)에 불과한 상황에 이번 지하수 개발로 타들어가는 논밭에 대비와 같은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채 전북본부장은 "유래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영농을 위한 용수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캠코, 전북지역 압류재산 34건 공매 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는 3일부터 5일까지 전라북도 소재 재산 약 142억원 규모, 총 34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공매는 전북도민에게 유익한 공매 정보를 제공하고 공매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자체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가 진행하는 주요 공매물건에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일반음식점과 전주시 완산구 소재 단독주택, 군산시 소룡중 소재 공장용지 등이 있다.

한편 국제징수법 개정으로 공매보증금 납부기준이 기존 입찰금액의 10%에서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로 변경됨에 따라 입찰 시 공매보증금 납부에 유의해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의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공매 입찰 결과는 8월 11시 이후부터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 한전 익산지사, 유관기관 상호 협력 다짐 간담회 개최

한국전력 익산지사는 지난 27일 관내 유관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대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익산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 관계자 및 한전 익산지사 직원 등 총 3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최근 한전이 국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전력사업을 소개하고, 지사 내의 태양광 발전설비, 배전설비, K-BEMS(KEPCO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및 EV 충전소 등 전력설비를 둘러봤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력사업 관련 공급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여러 전력설비 중에서 지사 건물 1층 K-BEMS 홍보센터는 K-BEMS의 작동 원리 및 기대 효과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관계자들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인재용 기자

www.jjnh.co.kr

##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마늘



장미



호박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국,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윤,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전주농협중앙회  
전주농협 Good 농산물